

## 매경 장대환 회장 "벤처 정신으로 재무장"

사내 벤처 엠로보 선보여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 2016.03.24 15:42:00



▲매경 50주년 행사.

매일경제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은 24일 열린 창간 50주년 사내 행사에서 "매경의 미래 50년 비전은 글로벌 넘버1 디지털 콘텐츠 그룹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대환 회장은 이어 "이를 위한 우선적인 액션플랜은 벤처정신, 로버저널리즘, 오픈플랫폼"이라며 "무엇보다 모바일 디지털 환경에 맞는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매출력 확대를 가져오고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회장은 '벤처정신'을 강조했다. 고(故) 정진기 창업주가 맨 손으로 매경을 일궈냈듯이 벤처정신으로 미디어 환경을 둘러싼 거센 도전을 헤쳐나가자는 것.

장 회장은 "매경미디어그룹은 50년 전 창업했던 도전정신, 벤처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으로 신규 사업 진출은 물론 인수합병(M&A)과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매경은 이날 매경 사내 벤처 1호이자 스타트업 '엠로보(M-Robo)'를 선보였다.

엠로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쏟아지는 기업 공시자료를 텍스트 기사, 그림, 도표뿐 아니라 영어·중국어 기사로 1초 만에 작성,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주식에 투자하는 소액 투자자의 70~80%가 '대장주'나 '우량주'보다는 코스닥 종목 등 기사로 잘 다뤄지지 않은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엠로보는 2분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매경은 지난해 9월 사내벤처 공모 계획을 밝히고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총 9개 팀이 사내벤처 공모에 지원, 그 중 3개 팀이 선발돼 국내 엑셀레이터(창업 초기기업 육성 기업)인 '액트너랩'에서 3개월간 트레이닝을 거쳐 최종 한 팀이 선정됐다.

이밖에 매경은 동영상, 헬스케어, 생명과학 분야 등 외부 벤처 회사 4곳에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은 "24시간 깨어 있는 미디어를 만들고 신문과 방송 인터넷이 디지털에서 하나가 되는 뉴스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룹 차원의 소셜팀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변화의 시작에 불과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 많이 읽은 기사

- 1 빨래방 차리겠다고 하자,기가 찬 듯 물었다... "얼마면 돼?"
- 2 다음 뉴스서 '뷰' 사라지고 구독판 생긴다
- 3 완도 실종가족 보도, 관행처럼 쓰던 '동반자살' 사라져
- 4 MBN 보도국장 지명자 임명동의 부결
- 5 MBC뉴스 유튜브 급상승세...6월 한 달 누적 조회수 3억5000만

'매경 디지털콘텐츠페어'는 미래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새로운 매경의 인재상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 최신 기사

- 1 **TBS** 재단, 설립준비만 2년여... 폐지는 며칠만...
- 2 호반 '**KBS** 기자 급여 가압류' 신청, 법원서 기...
- 3 "포털 알고리즘의 기사 유통 독점은 '위헌'적,..."
- 4 권성동 "언론노조, 좌지우지"... **KBS-MBC**본...

[협회소개](#) | [광고안내](#) | [구독신청](#) | [제휴안내](#) | [찾아오시는길](#) | [저작권문의](#) | [청소년보호방침](#) | [개인정보취급방침](#)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층 한국기자협회

TEL 사무국: 734-9321~3, 편집국: 02-737-2483 | FAX: 02-738-1003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한국기자협회와 기자협회보의 명칭과 로고는 본 협회 소유 고유재산입니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오용할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wered by **AMI**